

남원시 원푸드 육성 미식관광 활성화

농특산물·가공식품 융합 부가가치 전주대 협력단과 18종 메뉴 개발 백향과·앙금빵 등 지적재산권 창출

남원시가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 육성으로 가공식품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남원 원푸드와 미식관광 사업화에 주력하고 있다.

남원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남원 대표상품 육성을 본격화하고자 관내 농특산물을 기존의 가공식품과 융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미식관광 개발은 물론 연계된 관광의 가능성 향상과 확장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남원 원푸드' 육성을 위한 방향성을 확립하고 시장조사를 통한 메뉴개발 아이디어를 선정했던 시는 테스트키친 및 시식평가회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백향과와 소금과자, 백향과빵을 비롯한 간식류 9종과 백향과 꺾바로우, 닭강정 등 간편식류 3종, 백향과 소스 등 소스류 3종, 백향과 물김치, 밀원부각 반찬류 2종, 백향과막걸리에이드 음료류 1종 등 총 18종의 메뉴를 개발했다.

지난 5월 춘향제와 10월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에서의 개발메뉴 전시 및 시식 평가를 통해 미



남원 원푸드 활용 개발제품 기술이전 교육생들이 교육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래 남원 대표음식을 공유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간 먹거리 관련 상품개발을 포함한 미식 상품화 및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미식사업과 미식관광에 대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현재는 원푸드 전략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진행 중이며 개발메뉴 중 백향과 앙금

및 앙금빵 등 3건에 대한 지적 재산권 창출과 기술이전 컨설팅도 추진 중이다.

남원시 농촌진흥과 관계자는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농특산물을 활용해 미식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미식관광'이 남원만의 새로운 도시관광 트렌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새 가족 탄생을 축하합니다

남원시 신생아 기념품 3종 마련

남원시가 신생아 기념품 3종을 마련해 '신생아 생애 첫 축하기념품'을 지급한다.

남원시에 따르면 축하 기념품은 올해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기념품은 신생아 출산 가정 선호도 조사를 거쳐 선정됐다. 희소성과 실용성을 반영했으며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받을 수 있다. 지원은 이달부터다.

축하 기념품은 아기가 태어난 해의 동물 문양과 아기에겐 축하하는 축하 문구를 담은 '아기 띠 도장'과 옷칠의 고장 남원시의 특수성을 살린 '옷칠 이유 식기', 건강하게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아기 체온계' 등 3가지다. 이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남원시는 '생애 첫 축하기념품' 이외 남원사랑 상품권(10만원) 지급, 남원새마을금고 생애 첫 통장개설(10만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셋째 이상 다자녀가정에게는 '육아용품 구입 쿠폰(25만원)'도 지원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새 생명 탄생을 지역사회와 함께 축하하고 행복하게 기를 수 있도록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조기에 건립하는 등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민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시 지황 농가 생산자 수확·유통 교육

4년 30억 투입 지황 세계화 추진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최근 지황 농가 40명을 대상으로 지황 생산자 수확·유통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지황 수매에 앞서 수매 요령 교육을 통해 부적합품을 사전에 예방해 재작업 등 불편함을 없애고자 마련됐다.

교육은 칠보농협 공동체역 박원균 한약사를 초빙해 수확 후 선별 방법, 수매 기준, 수매 가격 등에 대해 안내했다.

또 농약안전사용관리(PLS)에 대해 교육하고, 영농현장에서 겪었던 애로사항과 올해 지황 작황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황은 쌍화탕, 경옥고, 십전대보탕 등 다양한 한약 처방과 건강기능식품 재료로 꾸준히 이용되는 약용작물이다.

특히 정읍지황은 예로부터 약효가 뛰어나 1992년 국립축산식품부로부터 주산단지로 지정됐고, 2015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해 그 명성과 품질을 이어가고 있다.

정읍시는 지황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4년간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상품개발, 마케팅, 시설 인프라 구축 등 분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정읍시,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늘린다

올 2배 500명 이상 유치 추진

정읍시가 농촌 인건비 상승과 노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규모를 확대 유치할 계획이다.

정읍시는 올해 MOU체결로 55명, 결혼이민자가족초청으로 187명, 국내체류자 외국인 6명 등 248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달 지역 내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희망 수요조사 실시한 결과 138농가에서 540명 규모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이취직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최종 배정인원이 확정된 뒤 내년도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500명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계절적 인력 수요가 큰 농업분야에서 단기간(E-8비자, 5개월) 외국

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고용능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휴게·휴일 보장 등 기본적인 고용주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 기본 5개월의 체류기간에서 고용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저출생과 고령화, 인구 유출 등에 따른 농촌인구 감소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지자체와의 MOU 체결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이탈률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해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s@



고창 북분자유원지 친장애인지설 탈바꿈

동호해수욕장 캠핑장과 2곳

열린관광지사업 대상지 선정

고창의 대표 관광지 동호해수욕장과 북분자유원지 내 2곳의 국민여가캠핑장이 장애인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친근한 캠핑장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동호해수욕장과 북분자유원지가 '2024년 열린관광지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른 보상사업비로 국비 5억원을 포함 10억원이 확보됐다고 12일 밝혔다.

열린관광지사업은 관광지의 보행로, 경사로 정비 등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유령별로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를 설치하는 등을 누구에게나 편리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24년 열린관광지사업' 신규 대상지로 전국에서 12개 자치단체의 관광지 30개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동호해수욕장과 북분자유원지가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군은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베리어프리' 전문가들의 현장 컨설팅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관광지 특성에 맞는 시설 개선과 관광 취약계층 유형별 관광체험 콘텐츠를 확충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균등한 관광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물리적 시설 개선 뿐 아니라 관광활동을 위한 체험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 정보, 서비스 등 무장애 관광을 위한 제반사항을 함께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